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122호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세종시청 공무원들에게 골재 채취 허가 위해 9억원 뇌물 줬다"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 허가 둘러싸고 뇌물수수 · 행정비리 폭로

▲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사진 오른쪽)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세종시청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 수수 행위와 행정 비위에 대해 세종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세종시청 전반에대한 감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는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과 8월 세종시청 전직 공무원 G씨와 K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골재채취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모두 9억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 대표는 "친구인 H씨에게도 골재 채취 인 ·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골재채취 인 · 허가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를 바로잡아달라며 감사위원회 등 10회에 거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세종시청 전 · 현직 비서실장에게 각각 1회씩, 현직 비서관에 3회, 시청 규제개혁팀에 1회, 前 환경녹지국장에 2회, 세종시의회 P의원에게 1회,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민원접수 1회를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림개발의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뇌물수수를 비롯해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림개발은 2017년 1월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지의 변경과 기간 연장을 시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취소통보를 내린 상태다.

이정복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환담 나눠 김성구<사진 오른쪽> 대전투데이 사장은 27일 오전 대전시교육감실에서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설 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교육기반을 구축해 창의 ·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

공선법 위반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의원직 사퇴'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 "대법원 상고도 포기"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요구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27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방 의원은 이날 오후 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의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 부끄럽다"며 "저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구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신 구민과 자원봉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하지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3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했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랑의열매에 1억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한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방 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천안 아산 강소특구 지정 본격 추진

충남도, 정부에 지정 요청서 전달…반도체 · 디스플레이 융합 등 특구 조성

충남도가 '천안아산 KTX역세권 연구 · 개발(R&D) 집적지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확대 ·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27일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국내유일의 자동차부품 전문연구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풍세 소재)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강소특구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집적지구(천안 불당 · 아산 탕정)와 천안 풍세지구(풍세일반 산단 · 천안 제6산단)를 배후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특화분야는 충남의 대표 주력업종인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산업이 융합된 'IFCAr' 컨셉의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정했다.

'IFCAr'는 충남강소특구의 4대 중점 육성분야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자율주행(Autonomous Car)의 앞 글자를 조합해 명명했다.

이는 '케이스(CASE) 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 산업혁명과 도 일맥상통한다.

강소특구의 배후공간은 3개의 기능으로 나눠 ▲천안 불당 R&D 거점지구(연구개발 및 창업) ▲아산 탕정 기업집적지구(기업 유치 및 주거) ▲천안 풍세 산업지구(기술사업화 실증)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과기정통부 심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전문가위원회 심사와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정병락 도 미래산업국장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 예정된 서면 심사, 현장조사 평가, 종합발표 평가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도 계획대로 강소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소특구는 자생 · 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연구개발(R&D) 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 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개발행위 의제처리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정환 기자

‘부여여고’ 이전 지지부진…기피현상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 학교 이전 비용 300억 원 중 절반 부족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이 지지부진한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여여고 학생들이 더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답보 상태에 빠진 학교 이전 문제를 올해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비왕궁터 발굴 · 정비사업 문화재 지구 내 위치한 부여여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교 이전을 위한 문화재청의 손실보상액이 전체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에 그치다 보니 이전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부여군 백제왕도복원사업단에 보존정비팀이 신설되고 부여여고 학부모회와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염원으로 학교 이전이 재추진됐지만, 관계 기관이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추가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교육부는 신설이 아닌 단순 이전의 경우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부여고와 통합할 경우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56년이 넘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문화재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부여여고 진학 기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 군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학부모회와 동창회 등을 통한 불만의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은 학교 이전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손팻말과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비왕궁터 발굴 · 정비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학교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끌어온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문화재청, 부여군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대덕구의회, ‘2019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정식’ 대덕구 선수단 격려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의원들은 26일 오후 6시 30분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출정식에 참석해 대덕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서미경 의장, 박정현 구청장, 박은희 의원, 김태성 의원, 이삼남 의원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회원종목 단체장 및 사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산시, 2020년 도비확보 총력

지방이양 사업 등 도비확보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 충남도 본예산 편성 일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 도비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도비확보가 필요한 신규사업 46건을 발굴하고 국 · 소장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사업 건의 및 도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8월 26일 처음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산시 지역구 김영권, 여운영, 조철기, 안장헌 도의원과 신규사업 46건에 대한 도비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주요사업으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이순신테마 놀이터 조성, 학선하키장 제2구장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신정호 지방공원 조성, 마을무선방송 및 방범용 CCTV 설치, 온양대로 2-17호(아산IC진입도로) 개설,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아산시 먹거리 통합센터 설립, 시민주도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건립 등 총 46건 519억 원의 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내년충남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훈 부시장은 "그동안 도비확보를 위해 미리부터 사업을 발굴하고 충남도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협의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 중 3,600억 원 정도가 충남도 사업으로 지방이양 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해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도의원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도비확보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도 "건의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도비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는 간담회 개최에 앞서 도비 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지난 23일에 유병훈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충남도청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더민주당,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 위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 · 박주민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안행위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국회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박완주 의원, 국내기업투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부품 · 소재 · 장비산업 자립화 이끌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기업 성장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6일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를 방문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펀드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26일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기술국산화와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펀드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는 모두 개인자금으로 이뤄졌다.

해당 상품은 일본경제도발을 극복하고자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출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뜻에서 이름을 ‘필승코리아’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필승코리아 펀드로 조성된 자금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펀드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기업들의 자립화를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등을 배후 공간으로 구축하는 충남강소특구지정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에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역사회의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에도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김옥수 의원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서산에 주소를 둔 김옥수 의원(비례)은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軍)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서산과 보령 등 지역 일부 주민은 사격훈련과 폭격기 · 헬기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 · 포격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음 경감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11곳에 대해 176만여 명이 522건의 소송을 제기해 7767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소음영향 기준이 강화된다면 피해자와 보상금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라며 “전투기와 수송기, 헬리콥터 등이 수시로 뜨고 내리면서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를 포함해 서산시 4개면 2개동 주민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해 도민들은 생활불편과 가축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군소음 발생 최소화, 나아가 서산 군비행장 이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행장 소음 관련 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시민문화시장 조례 제정 간담회

“시민문화시장은 세종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세종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플리마켓(시민문화시장)과 손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의원은 “시민문화시장 관련 조례는 무질서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는 시민문화시장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 했다. ‘시민문화시장’은 벼룩시장의 일종으로서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결합된 임시시장을 말한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에서도 시민문화시장을 열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평시장에서 시민문화시장이 열려 700여명의 시민이 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띤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소상공인협회 한기정 회장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지만 플리마켓 등이 목적과 다르게 기업화 또는 외지 업체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의 운영 ·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평시장상인회 조영준 회장은 “관내 전통시장이 모두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여 27일부터 열리는 제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제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7일 NH농협 세종점에서 부품과 소재 등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은 물론, 사회 저명인사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에 송아영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7일 오후 당사 회의실에서 제5차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아영<사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세종시당은 앞서 지난 21일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3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송아영 직무대행이 세종시당 위원장에 단독으로 접수했고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며 “나라를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관련 자료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7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해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했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년 8월 2일)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기록물에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전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성구 기자

학교 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김소연 의원,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개선 방안 모색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은 27일 대회의실에서 ‘학교 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 · 중 · 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성평등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공저)는 “페미니즘 남녀갈등, 학내 갈등 진원지가 되다”라는 주제로 학교내 페미니즘 교육 및 성평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과 혐오, 단절을 넘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휴머니즘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정환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 ·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지역 학생들을 똑똑하고 인성이 바른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일 오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앞으로의 대전교육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특히 설 교육감은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한민국 창의 · 융합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고, 지식전달형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과 경험이 가능한 메이커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하고 과목 간 융합교육을 확대,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지난 1년 간의 성과는.

첫째, 유 · 초 · 중 · 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중 ·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둘째,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와 석면 교체, 급식실 현대화, CCTV 설치로 등을 추진했으며, 생존수영 교육대상자를 초등 5학년까지 확대했다.

셋째, 학생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실천 중심의 창의 ·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아 감사원 선정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교육청단위 최우수기관,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전국 Wee센터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2019년 기관부문대상 수상), 교육부 평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쉬운 점은.

시설환경개선, 학생복지, 교원업무경감 등 현장 중심 · 학생 중심의 정책추진에 주력했지만, 제한된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자원 확보를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대전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있다면.

첫째는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내 예술교육전용공간인 '에드림홀'을 설치합니다.

올해는 6개교에 설치 예정이고 향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계획하여 총 64개교의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무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특구와 연결하여 과학, 정보와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메이커교육센터를 증설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로교육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KAIST,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진로 · 진학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에게도 급변하는 시대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 획기적인 시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가 잘 자리 잡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 들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사고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 강화를 위해 2019학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 학습목표와 평가의 방향을 알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과 성장 내용을 기록하여 가정에 통지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평가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운영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학생들은 참여형 수업에 즐겁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 안착을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평가 업무 경감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관련 자료들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중 · 고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도 지원)되는 등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 · 중 · 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한 벌씩 지원하며,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를 분담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교복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개의 혁신학교가 대전에 생기는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요?

대전 혁신학교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혁신 선도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전 혁신학교는 변화입니다.

자율적 학교 경영, 수평적 회의 문화 등 자발성과 자율성을 신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지향합니다.

둘째, 성장입니다.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사-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셋째, 본질찾기입니다.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함께 모여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환경,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 본연의 모습 찾기 노력이 우선됩니다.

넷째, 협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교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 역사, 예술 활동 등을 경험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대전의 혁신학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전체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실내체육관 공기질 개선시스템을 체육관이 있는 전체학교에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지진에 대비한 건물 내진보강 사업과 석면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식중독이 없는 건강한 급식이 중요하다. 유관기관, 시민 소비자감시단과 함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급식기구와 먹는 물 미생물 검사를 통해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교육감님은 평소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듀힐링인데요. 핵심 정책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교사와 학부모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을 다독여 주는 전국 최초의 심리 상담센터인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듀힐링센터는 한마디로 행복충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하고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코칭, 힐링캠프, 텔레상담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5천여명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96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에듀힐링센터는 2017년 대한민국 우수 특허대상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 · 도교육청평가 특색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었구요. 근래에는 '2019 코리아 파워 리더 대상'에듀-코칭 부문 대상을 수상 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가족 마음건강 지원 정책입니다.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 추진 하신다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안전한 수학여행이 이루어지도록 교감, 행정실장, 소방대원 등 현장체험학습 분야의 전문가 4명을 1팀으로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여행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TF를 운영합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평가까지 탑재된 자료를 관리하며 피드백하고 있다.

셋째, 체험중심 학생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의식 내면화를 위해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함양 및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년별 51차시 이상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19시민체험센터, 교통문화연수원 등 지역의 체험시설을 적극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직원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3년 이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 · 실습 비중을 높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한 '365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면 과학의 도시고요, 또 대전의 아이들은 과학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전 학생들이 과학을 좀 더 가깝게 접하고 넓게 습득해서 노벨상까지 탈 수 있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을 대전 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요?

우리 교육청은 2017년부터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는 우리 대전의 과학교육 브랜드로서, 노벨과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역량 다지기 프로젝트입니다.

중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벨과학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 노벨과학동아리와 노벨과학 페스티벌,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등이 있습니다.

노벨과학 동아리는 과학 진로체험 및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은 물론, 과학적 의사소통과 협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일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발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노벨과학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과학축제 모델을 제시하고자 사전예약과 순환식 체험을 통해 부스 대기 시간이 없고 노벨상 수상자의 실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는 선생님들에게 노벨과학상 수상자와의 면담, 수업 참관, 교수법 강의, 교사 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해외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가지타 교수님과의 면담를 통해 실험교육의 중요성과 실패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교육, 소통을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전교육 공감원탁회의를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요?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는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교육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교육청이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10여명이 모여 첫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실시했고, 금년 4월 24일 실시한 2번째 원탁회의에도 110여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공약 실천과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총 34건의 제안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공동체가 정책을 이해하고 소통 · 협력할 때에,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4회 정도의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전 교육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안해 주신 고견과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소중하게 활용하여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이정복 부국장 · 정리=김정환 기자

●동 정●●●

하반기학원설립 · 운영자 연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8일 오전 10시 한밭대에서 열리는 2019년 하반기 학원설립 · 운영자 연수에 참석.

천사친구 효돌 · 효순이 전달식

황인호 동구청장= 28일 오후 2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천사친구 효돌 · 효순이 전달식을 개최.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종태 서구청장= 28일 오후 2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다.

온천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 28일 오전 11시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온천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연석회의 주재

박정현 대덕구청장 = 28일 오전 11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9 구민의 날 기념 행사 '모여樂 대덕' 준비를 위한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대덕구 공정 · 생태관광 관광두레 활성화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대덕구 공정 · 생태관광 및 관광두레 활성화를 위해 협약식과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27일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는 2019 공정 ·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자인 ▲(주)여행문화학교 산책(대표 김성선),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대표 안여종), ▲사유담협동조합(이사장 이주현), ▲장동-계족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위원장 장경화)이 함께 했고, 대덕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인 ▲길愛(대표 김희경), ▲아주맑은마을(대표 신정숙), ▲ 생태문화 아름드리(대표 김정숙)도 이날 대덕구와 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공정 · 생태관광 및 관광두레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공정 · 생태관광 및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날 공정 · 생태관광 및 관광두레 SNS 홍보를 책임질 청년 서포터즈단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대덕구 공정 · 생태관광과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공정 · 생태관광과 관광두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갖춘 관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 대덕구 공정 ·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문화체육과(042-608-6735~6)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 강력 단속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대전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3블럭 아파트는 이달 20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26일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시는 신고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수 · 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을 다운계약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 또한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계약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 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 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갑천3블럭 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시 전역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해 강력 조치할 예정인 만큼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청년 정책제안의 장 청년의회

市-대전시의회 오늘 개최

청년들이 일일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문제를 개선하는 정책 제안의 자리가 마련된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 청년들과 시의원, 공무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전 청년의회'를 개최한다.

청년의회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청년문제 개선을 위해 당일 의원이 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청년층의 문제와 정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위촉되는 청년의원은 청년협의체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 소속 20명과 청년정책연구 공모에 선정된 2명 등 22명이다.

이 들은 팀 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일상에서 겪는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 등 문제의 대안책을 연구해 왔다.

청년의원들은 이날 정책제안 발표와 시정 질의(5명)에 이은 5분 자유발언(2명)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소신을 밝히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청년의원들은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성과 대학생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정책, 소셜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대전 공학계열 청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제안,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제안 및 20~30대 성인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컨설팅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전망이다.

청년의원들이 제안한 총 24개의 정책과제는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시행 가능한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의회는 시와 시의회가 보다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시장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평생학습 성과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협의회

유성형 학습생태계 조성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7일 구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성과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유성구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회의는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과 신중년 일자리 연계 교육인 '5060청춘대학' 운영 등에 대한 가정지 평생학습과장의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유성형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토의로 진행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인사말에서 "평생 배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구는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에 적극 화답하고 지원하겠으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평생학습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YMCA '로컬푸드 한마당' 개최

매월 지역 농가 체험 및 로컬푸드 활성화

대전YMCA는 대전시 지원을 받아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탄방동 남선공원체육관 주차장에서 농산물공동체형성 사업 '로컬푸드 한마당'을 진행한다.

로컬푸드 한마당은 농민과 소비자들이 만나는 직거래 장터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탄방동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시와 대전지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직거래 장터 운영, 로컬푸드 체험 및 로컬푸드 요리교실로 진행된다.

대전YMCA는 지역사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역 농가 체험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요리로 이야기하는 로컬푸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병배 기자

중구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실시

9월 2~10일까지 접종 동물등록 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동물병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은 중구로 동물등록을 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 ·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표식을 가져가야한다. 또한 당일 등록 후 접종은 안되고, 접종 전 미리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방문해야 한다.

접종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씩 4일간 12개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9월 2일 중촌동 · 목동 · 은행선화동을 시작으로, 3일 용두동 · 태평1동 · 태평2동, 4일 대사동 · 부사동 · 석교동, 5일 유천1동 · 유천2동 · 문화1동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동물병원(대흥동) ▲제일동물병원(문창동) ▲금비동물병원(오류동) ▲닥터펫에이스동물병원(산성동) 4곳의 지정병원에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시간 내 방문해 접종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042-606-655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많은 반려견 소유주의 참여를 바라고, 접종 시 배변봉투 소지와 목줄 · 입마개 등 펫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특별교부세 2천만 원 지원받아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 선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 심사 결과 전국에서 총 7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서구는 달동네 골목에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하는 대구 동구의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공모했다.

특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구는 장소 수요조사, 주민동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좁고 어두운 골목길, 우범지대 등 동네 곳곳에 300~400여개의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하고 주민 호응도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혁신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에 가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서구도 주민 생활에 반가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지상주차장서 운영

대전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지상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동구지회(지회장 정경영)소속 정비사 80여 명이 추석연휴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승용차 · 승합차 · 소형화물차 대상 안전점검 실시로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고, 엔진오일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 부동액, 워셔액 등을 보충하며, 전구 등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줘 알찬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상정비가 필요한 자동차는 지역 내 정비업소에서 저렴하게 정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251-4911)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매년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명절 또한 자동차 사전 안전점검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길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구민의 날 기념 버스킹 한마당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1일 오후 7시 뿌리공원 수변무대에서 제43회 구민의 날 기념 버스킹 한마당을 펼친다.

버스킹은 보훈가족 · 주민 ·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함께 9월 1일인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의 자리로 마련된다. 유공구민 표창 등 기념식은 30일 오전 10시에 청사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추진된다.

'제43회 중구민의 날 기념 버스킹 한마당'은 전문 MC 곽성열씨가 사회를 맡고, 인터뮤직밴드 · 걸그룹 프리즘 · 소프라노 이현숙 등 총 6개팀이 출연해 2시간 동안 가요, 가곡,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흥겹고 열정적인 축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마흔 세 번째 중구민의 날을 뜻깊고 의미있게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흥겨운 음악회로 준비했다"며, "구민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희망찬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탄동농협 박정순 과장, 고객 자산 1800여만원 지켜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탄동농협 박정순 과장이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고객 자산 1800여만원을 지켜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7일 탄동농협에 따르면 본점에 근무하는 박정순 과장은 지난 12일 인근의 연구소에 근무 중인 여성 고객이 마감시간 가까워진 시간대에 창구를 방문, 급하게 고액현금인출을 요구하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대화하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중임을 확인하고 고객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속히 연락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감사장을 받은 박정순 과장은 "지속적인 전화금융사기예방교육과 고객과의 대화를 통한 관심 표현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병열 조합장은"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꾸준히 홍보해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1층

내년 100억 원 규모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

천안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천안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억 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최저임금 상승, 유통환경 변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12월 1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최초 발행하고 2020년부터 1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지원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청렴마일리지, 탄소포인트, 우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이번 천안사랑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누구나 앱(App)을 설치하거나 카드를 신청하면 본인 계좌와 연결한 후 필요한 만큼 충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대부분 업소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별도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다.

이 외에도 평상시에는 6%, 명절 · 출시기념 · 휴가철 등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 숙박업 · 도소매업 · 학원 · 주유소 · 관내 제조업 등으로 천안 내 3만여 개 점포가 해당한다.

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나 상품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 등은 제외되며 이용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시는 카드형 지역화폐 천안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지역화폐 제도는 이미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예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됐다"며 "지역화폐가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비 231억 확보

당진시, 2020년부터 3년 간 투입 · 제2 RPC 건립

당진시가 정부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국비 92억 4000만 원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비 2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당진을 포함해 전국의 19개 시 · 군, 20개 사업자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발표평가, 세부 설계 심사 등 5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당진시는 2020년부터 3년 간 231억 원을 투입, 우강면 성원리 일원에 2만 9,704㎡(약 9000평)의 사업부지에 4,581㎡(1388평) 규모로 시간당 백미 15톤을 생산하는 가공시설과 건조시설(30톤×10기), 저장시설 (500톤×12기)을 갖춘 제2통합 RPC를 설립하고 원료곡 수송차량도 도입한다.

제2통합 RPC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강, 합덕, 신평, 면천, 정미, 대호지, 고대, 석문농협 등 8개 지역농협이 공동 활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참여 농협들이 사용 중인 기존 RPC 시설 6곳 중 5곳은 건조저장시설(DSC)화 하고 북부권 1개소는 친환경 쌀 생산 시설로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당진시는 향후 제2통합 RPC가 건립되면 그동안 수매 지연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물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제조원가 절감과 더불어 야적물량 감소로 고품질 원료곡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당진 RPC 통합을 목표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RPC 통합이라는 큰 틀을 갖고 시와 지역농협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우강, 합덕, 신평, 면천, 정미, 대호지, 고대, 석문농협 등 지역 8개 농협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제2통합 RPC를 건립키로 합의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물류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열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면서,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고병욱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에 있다.

송병배기자

대전농협 '필승코리아펀드' 가입행사 실시

NH농협은행 금융은 27일 오전 9시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에서 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신인식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장, 손명환 대전노조위원장, 대전농협 계열사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 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국내주식형 펀드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지난 14일 출시된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를 홍보하고 애국 금융상품 마케팅에 앞장 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부품 · 소재 · 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 ·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혜택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보수(0.5%)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관련된 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상품이다.

신인식 대전영업본부장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이 무역여건 변화로 인한 대외적 어려움 극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서산 농특산물 추석맞이 소비자 찾아 나선다

우체국쇼핑 및 서산뜨레몰 할인행사 본격화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 ·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지난 19일부터 우체국쇼핑과 연계해 생강한과, 한우, 감태, 사과 등 30여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특판전을 실시 중이며, 23일 부터는 서산시가 보증하는 농특산물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서산뜨레몰」에서 전 품목 20% 할인행사를 열어 실속 있는 추석 선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서울 · 경기 · 대전 · 세종 등에서 열리는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세종싱싱장터에서 팔도 농산물 판매전에 참가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대전청사, 서울 광진구 구의공원, 서울광장 등에서 열리는 직거래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9월 6일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내 팔콘광장에서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부대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며, 관내 20여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사과, 포도 등의 과일세트와 한과, 조청, 어리굴젓 등의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9월 9일에서 11까지 3일간, 수원 장안구청과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 등의 직거래 행사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직거래는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중간 유통 마진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제2기 출범

홍성군은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제2기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구성된 제2기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주요기업, 투자유치기업, 향우기업, 여성기업, 투자유치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인 협의회 위원들은 현재 분양 중인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강화와 기업 입주 시 다양한 지원 방안, 나아가 홍성군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제안 등 홍성군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홍성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길 바란다. 위원 여러분들의 경험, 노하우, 인맥 등이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사랑상품권 지역서점에서도 사용가능

아산시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이 지역 서점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아산시시립도서관은 지역서점협동조합과 시민의 책 소비 촉진과 지역서점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지역서점이 동참키로 했다.

아산사랑상품권 지역서점 가맹점은 문화서점, 아산문고, 한울서적, 유림서점, 설화문고, 형제서점, 아산서점, 영진문고, 중앙서점 등 총 9개이다.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은 아산시 관내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 문구 등 모든 상품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가격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 금액의 5%를 적립해 준다.

아산사랑상품권 구입은 10% 할인 금액으로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 배방농협, 탕정농협(명암점) 등 3개 금융기관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 구입한도 금액은 1인당 최고 월 30만원, 법인의 구입한도는 법인당 월 200만원으로 제한되며, 상품권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산사랑상품권이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 내년 중소 · 소상공인에 5500억 원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열려… 올해보다 융자지원 300억 원 증액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55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석 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 의결된 안건은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다.

도에 따르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조성액은 1632억 원이며,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규모는 550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액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조업과 소상공인 자금을 각각 100억 원씩 증액했다. 신용 · 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 50억 원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50억 원도 각각 신설됐다.

기업에 융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 종류에 따라 1.75~3%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이자보전 지원액은 총 130억 원 규모다.

이와 별개로 내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올해와 같이 30억 원을 투자해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우수 벤처 ·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일본 수출우대국 제외에 따른 도내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8월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다.

도 신동헌 실장은 "도는 민선 7기 역점추진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을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에 지원을 시작, 현재까지 27년 동안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8조 7471억 원(7만 554업체)을 지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확대

충남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확대한다. 그동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9월부터 일반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7일 오후 도교육청연구정보원 제2연수실에서 충남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지도교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교육일정을 확정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은 충남교육청 민주평화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의 노동권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담당할 전문 강사는 충남교육청이 개설한 충남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현직 교사와 현장 노동인권 활동가들이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의 수업 내용은 ▲노동 감수성 키우기 ▲노동의 의미와 가치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노동트리 만들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며 실무에 필요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한다.

상반기 충남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 187개 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직업계고와 함께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수능 이후에는 100개 학급을 선정해 수능 이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 중 '1971년생'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은 1971년생이었다. 2018년 기준 47세 국민은 전국에 94만2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공무원은 총 107만4842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50만 7027명(46.7%)인 것으로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와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에서 생산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3개 통계표로 구성됐다.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본 통계를 수록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103만대로 전년 대비 8.2%(7만8618대)가 증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설치 목적별로는 범죄예방이 절반에 가까운 49.4%(51만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5.5%(47만대), 교통단속 2.9%(3만대), 교통정보 수집 분석 2.2%(2만대) 순이었다.

또 CCTV의 효율적 운영과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전년대비 16개가 늘어난 224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른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6059명으로 전년대비 0.09%(4만 7515명) 증가했다.

평균 연령은 42.1세로 전년 대비 0.6세 높아졌고, 남성 40.9세, 여성 43.2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 36.7세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45.6세로 가장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7세(1971년생, 94만 2734명)였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7만 4842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년대비 0.7%p 증가한 46.7%(50만 7027명)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전년대비 4288명(9.0%) 증가한 5만 1772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공무원은 2599명, 교육공무원 3294명 등 국민의 안전, 삶의 질과 관련된 현장인력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31조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대비 9.7%(20.3조원)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28.6%(66.1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지난해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14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총 443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전년대비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는 각각 26%, 13% 감소한 수치다.

김정환기자

현대사회 효문화 발전 방안 '효문화포럼'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은 오는 30일(금) 오후 2시 효문화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현대사회 효문화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효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효문화포럼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효의 길, 효의 방향, 효의 목표'를 주제로 하며, 총 12명의 박사급 전문가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각각 사상,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효를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통하여 현대사회 속 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시성 원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은 한국 효문화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며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청양군, '충남 동네자치 축제' 시군 간담회 개최

충남도내 15개 시·군 동네자치 담당자 간담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6일 청양군민체육관 회의실에서 충남도내 15개 시·군 동네자치 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17일 개최 예정인 '제4회 충청남도 동네자치 한마당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충남지역 주민자치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서는 시군 우수사례 공유, 프로그램 경연대회, 도지사와의 공감 토크 등 다양한 주제와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역할 분담, 행사장 배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후 청양군주민자치연합회장은 "청양군은 주민자치와 동네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한마당 축제는 공동체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참여행정의 중심에 주민자치와 동네자치 그리고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남형 주민자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행안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반조성분야 입상, 청양읍주민자치회의 장난감은행 성공사례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으며, 주민세 활용 지역특색사업 및 동네자치 소액사업 시행 등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행사를 유치하게 됐다.

또 청양군은 마을별 동네자치 소액사업 4개 분야 ▲교육(마을 워크숍, 문화강좌 운영) ▲문화(마을 음악회, 동네자치 우수지역 견학) ▲경관개선(마을 대청소, 꽃길 조성) ▲복지사업(마을화합 토론회, 독거노인 간식배달, 다문화가정 돌봄) 등을 지원하면서 실질적 지역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 고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별초 실시

당진시 고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종익, 박지순)는 지난 26일 추석을 앞두고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별초를 실시했다.

이번 벌초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남, 여 새마을 지도자 약 30여명이 참여해 항곡리, 옥현리, 슬항리 공동묘지에서 묘지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남자 지도자들은 예초기를 이용한 잡초 작업을 하고, 여자 지도자들은 묘지 주변 환경정비를 하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추석 명절 만들기에 참여했다.

김종익 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훈훈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참석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27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유)가 개최한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산시와 기업인간 소통·협력을 위한 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회원사 15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대강화, 경영정보 공유, 정책 건의,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19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관련 유관기관 기업 대응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기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오세현 시장은 "기업은 아산시 발전의 근간이기에 함께 협력하고 긴밀한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및 충남도와 함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행복도시, 새로운 단계의 도시 미래상 정책지표 개발 착수

정책지표 구축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는 27일 행복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책지표 구축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도시경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 결과는 내년 4월 말에 발표 예정이다. 정책지표구축 및 조사과정은 LH, 세종시 등 유관기관 및 총괄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지표 구축은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을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건설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시건설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목표와 최근 세계적 도시계획 목표들을 반영한 도시의 각 분야별 정책지표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의 도시 정책의 평가 및 보완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다.

지난 2차례 정책지표 구축은 도시 건설 초기에 도시의 성장 상황, 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수준과 초기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도출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이번 정책지표 구축은 도시 건설 착공 이후 12년이 경과하고 인구가 24만 명을 넘은 일정 수준 이상 안정된 도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기본계획 등의 계획지표와 함께 유엔(UN)의 도시 관련 기구, ISO, ITDP등의 국제적 도시 평가지표와 국내외 선도 도시들의 지표들을 검토하여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기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 보람동과 자매결연 협약

공주시 사곡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 통한 상생발전 다짐

공주시 사곡면(면장 곽병수)은 27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 보람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양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은 곽병수 사곡면장과 진정옥 보람동장, 이·통장단 등 약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를 품은 사곡면'과 '행정수도의 중심 보람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행정과 문화,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공유 및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양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9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신·편입생 모집

백석대·백석문화대 평생교육원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평생교육원은 8월 30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사회복지학(사회복지사 2급), 아동학(보육교사 2급)이며, 신·편입생들이 해당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학사/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중퇴(졸업)자로, 전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4년제, 2년제 대학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평생교육원은 이밖에도 특별과정으로 ▲백석후마니타스최고위(CEO)과정 7기 ▲백석골프아카데미 ▲백석오페라성가아카데미 등을 진행하며, 일반과정으로 ▲부동산실전경매과정 ▲필라테스(교내, 교외) ▲커피바리스타2급과정 ▲커피로스팅 ▲마스터피아노 ▲피아노클리닉 ▲오르간 ▲바이올린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점은행제 및 특별과정, 일반교육과정의 신청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bu.ac.kr)와 전화(041-550-0663, 0664)로 문의,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환기자

농협대전유통 '6차산업전용관'과 '농협식품 전문코너' 개관

농업인생산기업 제품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농협대전유통(대표이사 이종우)은 지난 26일 대전점에서 농업인들과 마을기업, 지역농협이 생산한 가공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6차산업 전용관'과 '농협식품 전문코너'를 설치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6차산업 전용관'은 농업인생산기업 60개 업체가 생산한 167개 품목이 입점했고, '농협식품 전문코너'에는 46개 농협의 276개 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농업인생산기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위생이 입증된 제조시설에서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농협대전유통은 지난해 6차산업 인증 68개 업체의 300개 품목을 진열, 판매해 2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고 올해는 7월말 현재 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도말까지 4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대전유통 김유신 팀장은 "앞으로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생산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매장에서 시음·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생산업체를 주기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청양소방서, 청양군 노인요양원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 훈련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 수습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 훈련을 실시했다.

서천소방서, 추석 대비 서천특화시장 현장안전컨설팅 최장일 서천소방서장은 26일 오후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자율안전관리 강화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대전경찰, 대학생 홍보단 위촉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6일 오후 3시, 한남대학교 등 대전지역 대학별 경찰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대전충남병무청, 보령시청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교육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7일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 회의실에서 보령시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0명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종혁)는 26일 천안시보건소에서 천안시 시니어클럽소속 노인 105명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수자원공사 충청현대화사업단, 취약계층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난달 11일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민 · 관 · 공 협력사업에 성금을 기탁했던 한국수자원공사 충청현대화사업단(단장 정진표)이 27일 홍성군 구항면에서 진행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반려동물용 일부 수제 사료서 대장균군 검출

한국소비자원, 방부제 무첨가 강조표시 제품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싼 수제 사료나 간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11번가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에서 판매순위 상위 25위에 해당하는 반려견용 사료 15개와 간식 10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 · 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검사 결과, 5개 중 2개를 초과한 시료가 최소허용기준치(m)와 최대허용한계치(M) 범위에 포함되거나, 1개 시료라도 최대허용한계치(M)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 · 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 · 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 · 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논산소방서, 임산부 안심 출산 구급서비스 가입 홍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농어촌 분만 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 · 면의 농 · 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된다.

서비스 신청 후 임산부가 진통 혹은 출혈 등으로 119신고를 하면, 미리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응급처치 및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의 이송 등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9구급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119에 직접 전화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면 된다.

논산=김성구기자

경찰, 음주운전 집중 단속 큰 효과 거뒀다

6월 25일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이 지난 2달동안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월 25일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소방, 항공대원 수상생환훈련

소방헬기 수상 불시착 대비…탑승자 생존을 위해 실시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윤순중)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소방 활동 중 헬기가 수상에 불시착할 경우를 대비한 수상생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 소방본부 소방항공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소재 경기재난소방본부 수난구조훈련장에서 진행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헬기는 엔진이 동체 윗부분에 있어 수상에 불시착 할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 뒤집힐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항공대원들의 생환훈련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훈련은 휴대용 공기호흡기, 구명동의 등 생환장비 사용법 및 생존수영 훈련 등 소방헬기 불시착에 대비한 대원들의 생존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헬기 시뮬레이터 수중 탈출훈련은 실전적인 상황에서 실시돼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동일 소방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으로 항공대원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환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시, 폭염저감 인프라 근본적 해법 찾는다

그늘목 식재, 클린로드 가동, 하천 내 운동시설 그늘막 설치 등

대전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폭염발생에 대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폭염저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폭염대책으로 추진했던 무더위쉼터 확충과 그늘막 설치, 도로살수, 냉동수돗물 공급 등이 단편적이어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폭염저감 효과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그늘 제공과 미세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도로자동살수시스템(클린로드) 등 폭염저감시설 도입 확충으로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가로변과 교통섬, 도심 내 공원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를 위주로 대형 느티나무 등 그늘목 806주를 올 가을부터 식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거쳐 건물옥상과 벽면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시범 도입한 으능정이거리 등 7곳의 미세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를 본격 가동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중앙로 대전역~목척교 구간 250m에 설치한 도로자동살수시스템(클린로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효과 검증 후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본격 확대 시행할 경우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노면 잔류물질 세척효과로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 · 장년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뜨거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갑천, 유등천 내 파크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과 안전의자를 각각 30곳에 설치해 한여름의 폭염뿐만 아니라 봄 · 가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돌발성 소나기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서산소방서, 예초기 사용 안전사고 주의 당부

생활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 사용에 의한 부상과 말벌 쏘임 등 생활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는 잘못된 자세와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 돌이나 흙 등으로 인한 부상과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 등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비해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정지스위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및 주변의 돌이나 큰 나무 등 장애요인 제거, 작업 반경 15m내 작업자 외 접근금지, 보호안경 및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과 장시간 작업 시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예초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말벌과 뱀의 유무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등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아산소방서, 글로컬드림아카데미 직원 122명 대상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지난 23일,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인문관에서 글로컬드림아카데미 직원 122명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아산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 해 각종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등 인명사고 및 우발상황 최초 목격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범시민 심폐소생술 보급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CPR)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정지현 소방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범국민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소방서, 쉽고 빠른 인터넷 소방민원센터 이용하세요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홍보에 나섰다.

'소방민원센터(소민터)'란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소방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서류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서 제출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민원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소민터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80%이상 '만족'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3년째 진화 거듭… 성공적으로 운영 중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구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성민(가명) 학생은 토요일 오전이면 평소 다니는 A고등학교가 아닌 타 생활권의 B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기과학 연구 심화 탐구' 과목을 듣는다.

이처럼 세종시에서는 심화영어작문과 같이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과목이나 스페인어처럼 희망학생이 적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난 K-BEAUTY 탐구와 같이 학생의 진로전공과 연계한 과목 등을 거점학교에서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3년째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종국제고, 세종예술고, 세종하이텍고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 · 운영한 첫 해인 2019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참여 학생 대비 70% 이상의 수료율을 보였고 학생과 학부모, 강사들로부터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화과목, 예체능 실기 전공 교과, 전문 교과를 대상으로 총 46명(현직교사 25명, 공모교사 21명)의 지도교사가 46개 과목을 운영하는 <권역별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은 총 734명의 학생이 수강했으며, 이수한 학생은 514명으로 70%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인근 대학,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구반>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총 107명(현직교사 11명 포함)의 강사가 150개 반을 운영했다. 17개 고등학교에서 총 2,168명이 수강했고 수료한 학생이 1,530명으로 수료율은 70.6%를 나타냈다.

중학생(2 · 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총 32명의 강사가 32개 반을 운영했으며, 22개 중학교에서 총 396명이 수강했고, 297명의 학생이 수료하여 75%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종강 이후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강사 등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92%,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89.4%,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강사의 경우 만족도는 91%,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질문에는 95%의 강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대입자기소개서 특강을 포함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9월 2일(월) 19시, 세종교육청 2층 대강당)를 시작으로, 9월 3일 강좌 안내지 학교 배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강신청(www.sjecampus.com)에 이어 9월 20일 개강한다.

특히, 2학기에는 단위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과목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째 접어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강좌별 세분화된 만족도 평가 등이 효과를 보았다"면서 "하반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등 진로진학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성숙하고 전문화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태선기자

금산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충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관장 염가영)이 오는 9월 2019년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남부권역 함께 한 책 읽기 도서인 '곰씨의 의자'를 주제로 한 아동 독서체험, 전주 향교 일원으로 떠나는 전주독서대전 문화탐방, 신규회원 기념품 증정, 독서엽서 쓰기 등의 행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평일 DVD대출, 행사기간 중 도서 대출권수 2배로 확대, 대출정지 회원 면제 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염가영 관장은 "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참여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www.kslib.or.kr) 확인및 전화(041-753-4710)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독서문화행사

'독(讀) 독(讀) 독(讀), 책이 노크하네요.' 주제로 전시와 강연 등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서천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운영되며, '독(讀) 독(讀) 독(讀), 책이 노크하네요.'라는 주제로 전시와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10일(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가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부모교육' 운영 ▲20일(금) 가족인형극 '나무늘보와 돼지형제' 공연 ▲20일(금) 9월 인문학 특강 '보이는 세상(世相), 너머의 세상(世像)' 군산대 철학과 김성환 교수 특강 ▲26일(목) 백영옥 작가와의 만남-빨강 머리 앤이 하는 말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전▲ '아빠와 함께 다독다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참여 신청과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도서관 누리집(www.sc-lib.or.kr) 또는 전화(953-151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천 =이정복기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통계 · 분석 전문 시스템 유레카 홈페이지 구축

'유레카! 설문, 통계와 분석 어렵지 않아요' 설명회 개최

대전교육정책연구소(소장 임민수)는 2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2층)에서 온라인 설문 및 통계 분석 시스템 유레카 활용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레카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신설에 따라 각종 설문 및 통계 · 분석에 기반한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구축한 설문 및 통계 · 분석 전문 시스템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대전지역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유 · 초 · 중 · 고 교(원)감 및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유레카를 구축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이한나 팀장이 직접 참여하여 활용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유레카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종이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던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를 휴대폰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사전 · 사후 설문, 연구대회 관련한 각종 설문, 각종 통계 · 분석 및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유레카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구축한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캠퍼스' 활용 안내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대회 보고서, 각종 정책연구보고서, 교장 공모 제출 서류 등에서 연구자 스스로 미리미리 표절 검사를 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환기자

학생 맞춤교육 혁신학교 열정 불붙이는 공주교육지원청

유 · 초 · 중 · 고 15교(원) 교직원 220명 대상 연수 실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7일 고마아트센터에서 유 · 초 · 중 · 고 15교(원) 교직원 220명을 대상으로 '참학력 내실, 행복교육 혁신(동행)학교' 연수를 실시했다.

진행된 연수는 학교의 학생 맞춤교육 내실을 기하는 행복학교 확산을 위해 마련된 연수로, 이는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호평도 높은 강의로 연수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주 관내에는 학생 참학력 신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혁신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마곡초, 학봉초, 우성중, 공주북중 4개 학교가 있고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혁신동행학교가 유 · 초 · 중 · 고 · 특수 21교(원)이 있는데 연수자들의 대부분이 혁신(동행)학교 교직원이다.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 하에 시작된 강의는 3시간 이어졌는데, 각 나라의 대학입학시험을 분석 · 평가로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 선진화된 입시와 내신으로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탈락 시점 분산 등의 방향을 잡고 학교교육의 혁신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었으며, 이어 컨벤션홀(유 · 초), 세미나 1실(중), 세미나 2실(고) 학교급별 각각 강의가 2시간 이루어졌다.

유 · 초 교직원 대상의 강의는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에서 학교교육과정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교육과정 편성의 기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덜어낼까?,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 돌아보기, 활동에 의미 부여해서, 교육인 것, 교육이 아닌 것, 교육은 아니지만 해야 할 것, 교육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 등으로 분류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행복교육과정 만들기 방법을 알고 공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주 =정상범기자

보령교육지원청 중 · 고 학생연합회 리더십캠프 운영

위안부 기림 행사 · 민주적 학생회 운영 위한 워크숍 포함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23일~24일까지 학생 연합회 회원과 협력교사(주산중학교 정세훈, 최아름), 담당장학사 41명을 대상으로 '보령학생연합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다.

올해 5월 보령시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의 연합회가 구성(연합회장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이송이)되어 보령학생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다.

보령학생연합회에서는 학생회 자체적으로 보령학생연합회의 활동 방향을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학생 연합회'로 설정하고 광복절을 맞은 8월의 행사로 위안부 기림 행사와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적 현장이 남아있는 근대 문화 역사도시 군산을 탐방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주적 학생회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포함한 리더십캠프를 실시했다.

보령학생 연합회는 보령문화의 전당 앞 소녀상 앞에서 헌화, 위안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낭독, 묵념 등의 기림행사를 시작으로 채만식문학관 탐방, 20년대 쌀 수탈의 역사적 현장 탐방, 군산 동국사 앞 평화의 소녀상 앞 위안부 기림 행사 등을 시행했다.

늦은 시간 숙소에 모여 2학기 학생연합회의 활동 계획 수립 워크숍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은 리더십캠프 운영 학생을 격려하고 "학생회의 민주적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 예산 참여제 등 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 약속을 전했다.

보령 =김정미기자

아산시, 찾아가는 무료 노인 결핵검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찾아가는 무료 노인결핵검진 시행으로 노인 보건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한 무료 노인결핵검진은 8월 23일 현재까지 어르신 2,980명을 검진하고 4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중이다.

무료 노인결핵검진은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 등에서 문진 후 이동검진 차량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해 대한결핵협회 의사의 실시간 원격판독이 이뤄져 판독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객담 검사까지 진행한다.

흉부 엑스레이 결과는 검진 후 수일 내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되며, 객담검사 결과는 초기 이상소견자 외에는 최종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는 두 달 후에 개별 통보해 결핵으로부터 노인 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실제 걸리더라도 결핵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1년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반기 결핵검진은 ▲9월 도고면, 온양1동, 3동 ▲10월 온양4동, 5동, 6동 ▲11월 탕정면, 배방읍 ▲12월 영인면, 인주면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 =리량주기자

천안교육지원청, 2019 수학 교육 내실화 맞춤형 특강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은 27일 관내 참학력 수학 선도학교 담당교사 및 참가희망교사 15명을 대상으로 2019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수학적 개념 · 창의 · 진로교육을 강화해 충남 7대 핵심역량을 겸비한 참학력 미래인재 육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분과 강사로 나선 엄사중학교 이대영 교사는 수학동아리를 통한 교구활용수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천안청수고 이지근 교사는 고등학교 전략적 수업활동을 통한 맞춤형 학생부 작성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천안 =이정복기자

당진 순성초, 직로 뮤직 토크쇼 실시 당진 순성초등학교(교장성정순)는 지난26일, 5~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 창의인재육성을 위한진로 뮤직 토크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자기주도학습 · 리더쉽 개발원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공주대 KNU기업경영연구소, 제15차 사회혁신기업 세비코(SEVICO) 경영포럼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KNU기업경영연구소(소장장석인 교수)는 지난 23일 인문사회대학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사회적기업 경영인 그리고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사회혁신기업 세비코(SEVICO) 경영포럼'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사례 고찰"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대전복지관, 한전KDN 대전충남본부와 '어르신 시장나들이' 실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은 27일 한전KDN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용) 한마음봉사대와 함께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에서 "어르신 시장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동 정●●●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예산군지역총화협의회

황선봉 예산군수= 28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3/4분기 예산군지역총화협의회에 참석.

청년정책 제안 원탁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28일 오후 1시 30분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2019 홍성군민 청년정책 제안 원탁회의에 참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 28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본격 나섰다

홍성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내포신도시로!"

충남 홍성군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 27일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무추진단은 이용록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홍성군 관련부서 및 도 의회, 군 의회, 충남개발공사, 홍성군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포신도시의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경과 및 정보공유, 유치 확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 홍보방안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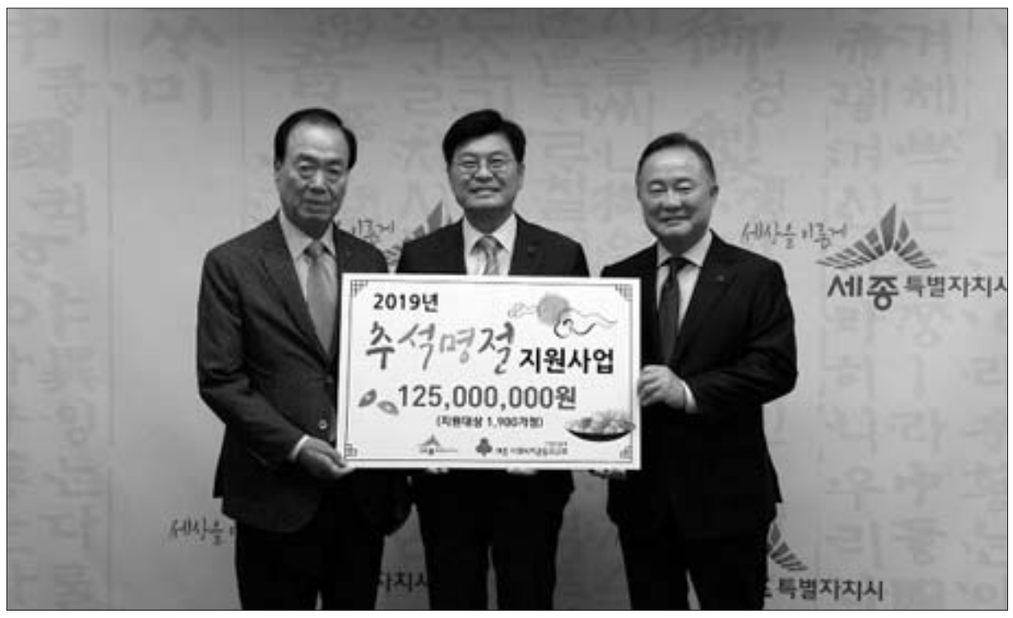
그동안 군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직접 방문해 내포신도시 이전을 적극 건의했고, 홍성군의회에서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은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충남경찰청, 교육청 등이 입지해있어 상호 협력체계가 가능한 광역행정타운임을 강점으로 꼽으며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과 관할서와 1시간대 접근성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부지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조성원가 분양과 신축비 지원으로 예산절감 ▲근무자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용록 부군수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육성 공약 실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충남 내포신도시의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며,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어느 기관이라도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며 실무추진단과 유관기관이 하나로 협업해 행정력을 모은다면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후보지로는 총 9개 지자체가 있으며, 11월까지 후보지 입지분석 등 평가 및 직원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12월에 최종 신축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세종시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세종시 관내 소외계층에게 추석 명절 위문금 1억 2500만원의 위문금을 배분했다. 좌측부터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모금 회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이 함께 위문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성금 통해 1900가정 1억 2500만원 추석 위문금품 지원

세종 시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세종시청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청 5층 접견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추석명절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세종시 저소득 1500가정에 5만원씩 7500만원, 그리고 400가정에 12만5000원 상당의 제수용품 구입비 50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이 전달됐다.

특히 세종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전달될 제수용품은 내달 3일 오전 11시 새롬동종합복지센터에서 약과, 포, 과일, 부침가루 등이 들어갈 선물상자 포장 작업을 전개한 뒤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장이 참석해 이춘희 시장과 홍영섭 지회장을 예방하고 세종시 나눔문화 확산과 올바른 공동모금 제도 정착을 위해 협의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도 이어졌다.

송병배 기자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식 실시

도정 인권침해 · 차별 조사 전문성 높인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비상임인권보호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인권상담조사 교육, 위촉장 수여, 제1차 인권보호관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도는 ▲노동 ▲장애인 ▲이주민 ▲여성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으며, 제1차 회의를 통해 인권보호관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위촉한 비상임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비상임인권보호관은 상임인권보호관과 함께 인권침해 신고 건에 대한 상담조사 지원 및 자문, 인권보호관회의 심의의결 참여 등 도민 인권 보호 ·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인권침해 · 차별 행위 조사 대상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 · 군 기관(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도가 출자 · 출연해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 · 시설 등이다.

인권보호관은 도민이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해당 기관 · 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인권침해 · 차별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041-635-3614), 팩스(041-635-3046), 우편 및 방문(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본관1층 충청남도 인권센터 125호)으로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인권상담 조사 및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인권보호관을 위촉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며 "앞으로 도는 인권보호관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가 인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90% 업데이트 완료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 내 공공 · 민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10대 중 9대는 이달 중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며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서며 현행 7자리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키로 하고, 내달 2일부터 신규 발급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새로운 번호체계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도내 대상 시설은 공공청사, 철도역, 공영 · 민영 주차장, 유통센터, 병원, 학교, 업무시설, 아파트, 문화 · 운동시설 등 총 219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공시설은 1975곳, 민간시설은 218곳이다.

도가 각 시 · 군을 통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오는 30일까지 업데이트에 착수키로 한 공공시설은 1961곳(99%), 민간시설은 190곳(87%)으로, 전체 착수율은 98%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시기 업데이트 완료 공공시설은 1912곳(97%), 민간시설은 44곳(20%), 전체 완료 비율은 89%로 비교적 높게 전망됐다.

그러나 도는 미 업데이트 시설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 완료 시설에 대한 조속한 업데이트를 독려 중이다.

업데이트 미 완료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시 개폐기 수동 작동, 자체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내달 2일 도내 15개 차량 등록소에서는 신규 번호판 배부 시 업데이트 미 완료 시설물 출입 시 문제점과 대응 요령, 시 · 군별 민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아파트나 쇼핑몰, 유료 주차장 등 민간 시설물 유형별로는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 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 방법 등 대응 요령을 매뉴얼로 작성 · 배포할 예정이다.

세계의 눈으로 세종을 보다

세종시 글로벌인턴십 성료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8월 한 달간 관내 대학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2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주재한 '제4기 글로벌 인턴십 수료식'에서는 글로벌 인턴의 체험소감 발표에 이어 수료증 수여식과 그룹별 연구과제 및 세종시 로고송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 제4기 글로벌 인턴십에는 관내에 소재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에 재학 중인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의 총 9개국 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종시교육청 등 13개 기관에 배치돼 해외 정책자료 수집 · 분석, 외국인 대상 민원 업무 처리지원 등 다양한 국제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인턴 기간 중 시정견학, 문화체험, 자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글로벌 인턴이 부서에 함께 근무하면서 제안한 세종시 행정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참신한 의견과 인턴 연구과제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검토해 시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앞으로 글로벌 인턴십을 더욱 확대 ·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행정도시 연합 활성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를 글로벌 행정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관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활용해 해외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29일~9월 15일까지, 전국 각지 직거래장터 참가

예산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7개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번에 군에서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는 서울시 서초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서초장날직거래장터를 비롯 세종시 도램뜰공원에서 열리는 전국팔도농특산물홍보판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지역특산물직거래장터, 대전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우수농특산물직거래장터, 수원시 장안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장안구농특산물직거래장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추석농수특산물서울장터,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 등 모두 7곳이다.

직거래장터에는 관내 24개 농가가 참여해 예산황토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대추, 밤 등 과실류와 쌀, 찹쌀, 현미, 보리 등 곡식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 사과주스, 한과, 참기름 등 가공식품과 같은 다양한 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대부분의 군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 참가를 통해 전국 각지에 예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 농특산물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공공건축 본질 공공성 · 도시경관 확보 성과

세종시 공공건축물 39개 사업 완료

세종시(시장 이춘희) 공공건설사업소가 지난 1년간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39개의 공공건축물이 완성됐다.

공공건설사업소는 지난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송통신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2개 팀 19명을 정원으로 개소해 27일로 1주년을 맞았다.

공공건설사업소는 지난 1년간 지역균형발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사업은 중앙 · 지방정부 간 소통 · 협력 공간인 지방자치회관('19.4.22.)과 전염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19.5.30.) 등 시가 발주한 37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읍면 복컴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1단계(연동면 · 한솔동 · 조치원읍 제2복컴), 2단계(부강 · 금남 · 전의 · 전동면), 3단계(장군 · 연서 · 소정면)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연동면 복컴('19.5.10.)과 한솔동 복컴 정음관('19.5.16.)을 준공했으며, 조치원 제2복컴은 연내 착공을 준비 중이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복컴 건립협의회를 구성해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설계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의면 복컴은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금남면 복컴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착수를 준비 중이다. 또, 전동면 복컴은 설계공모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부강면 복컴은 건립위치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3단계 사업은 건립부지 위치와 규모 등 시설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복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위치와 시설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맞춤형 복컴을 건립할 것"이라며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서는 공공건축의 본질인 이용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4-H인 능력개발 연찬회

예산군 4-H본부(회장 김일영)는 27일 황새공원 세미나실에서 4-H인 능력개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4-H본부, 영농4-H,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4-H 지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의 시간을 갖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지도자 표창에는 4-H본부 이재인, 김구철, 영농 4-H회 총무 정명진, 4-H지도교사협의회 교사 서의원 등 4명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돼 군 4-H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특강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윤명혁 학장으로부터 스마트시대 감성리더십이란 주제로 ▲감성과 섬세함을 갖춘 리더십 갖기 ▲감성사회의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등의 6가지 키워드 알기 ▲스마트시대 감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에 대한 교육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4-H정신인 지덕노체와 융합을 통해 군 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의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박은희 강사의 지역푸드플랜 정책방향에 대한 '식품 푸드플랜' 강의와 농업기술센터 박인숙 팀장의 'EM을 활용한 친환경세제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4-H본부 이봉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화합의 시간에는 삽교 꽃산 색소폰 연주회의 연주와 회원 장기자랑을 개최해 경품을 선물하는 등 참가 4-H인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회원 상호간의 활동정보를 지속 교환해 군 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첫 벼 베기 행사

오세현 아산시장=28일 오전 10시 30분 둔포면 산전리 일원에서 열리는 '첫 벼 베기 행사'에 참석.

최종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 = 28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 북부권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 오후 4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열에너지 공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

발대식

김기재 당진시의장=28일 오후 3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

양해각서 체결

가세로 태안군수=28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태안군 · 현대도시개발(주)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

역량강화교육

김돈곤 청양군수=28일 오전 10시 청양읍사무소에서 열리는 지역리더 상생발전 역량강화교육에 참석.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박차

태안군, 지난 26일 '충남도민생활체전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회' 열려

태안군이 오는 9월 27일 개최되는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유관기관, 태안군체육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제28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군은 ▲주차장 확보 및 교통대책 ▲경기장 준비 및 보수 · 보강 ▲숙박 · 외식 · 상인 등 손님맞이 점검 ▲대회 홍보 ▲쓰레기 처리 및 안전관리 대책 ▲의료지원 ▲군민 및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 각 기관 및 부서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9월 27일부터 3일간 태안에서 펼쳐지는 충남도민생활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대회기간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살펴 충남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로 치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태안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총 435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으며, 이들은 대회운영본부 · 종목별 경기장 등에 배치돼 ▲경기장 안내 및 급수지원 ▲교통주차 안내 ▲경기 운영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제28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태안군종합운동장 등 27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총 22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열정과 화합의 한마당'을 펼치게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맥키스컴퍼니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홍보 동참

당진시체육회와 업무협약·· 자사 제품활용 홍보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통합한 첫 대회인 2020충청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청권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힘을 보탠다.

당진시는 27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김홍장 당진시 체육회장과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홍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맥키스컴퍼니는 당진시체육회가 제공하는 엠블럼 등을 활용해 자사 상품의 보조라벨과 '이제우린' 소주 홍보용 포스터를 활용해 대회를 홍보키로 했다.

또한 맥키스컴퍼니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맥키스오페라와 함께 내년도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성공기원을 염원하는 공연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 체육회장은 "충청권 대표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 기탁과 수목원 황톳길 조성, 지역축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며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2020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당진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진 =최근수기자

우량 배추모종 마을까지 배송 완료

청양군농기센터, 약 97만 공급1상자 3000원 시중가보다 저렴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가 노약자와 부녀자 등 작업 능력이 약한 농업인들에게 김장김치용 가을배추우량 모종을 공급했다.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육묘장에서 길러진 모종은 26일 27일 이틀 동안 각 마을회관까지 배달됐다.

공급 물량은 약 97만주(4578농가)로 지난달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공급 가격은 1상자(105공 트레이) 3000원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

공급된 모종은 휘파람골드와 불암플러스 두 품종으로 연작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사마귀병에 강하고 포기가 잘 차며 저장성 또한 우수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후기에 포기가 잘 형성됨으로 밑거름에 중점을 두어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면서 "밑거름 양은 10a당 질소 20~26kg, 인산 12~20kg, 칼리 20~30kg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온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추가 전수조사 · 합동 예찰활동 강화

태안군이 최근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산림청 · 충남도와 함께 합동예찰을 시행한 결과, 총 4곳 42본의 소나무가 피해 감염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즉시 피해지 2㎞ 이내 5개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지난 21일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역학조사 결과 공유 ▲긴급방제계획 발표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토론 등을 펼쳤다.

군은 앞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태안읍 인평리와 남면 당암리 2곳에 설치하고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및 합동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유효해지는 11월에는 감염목 인근 반경 20m 소구역 모두베기 및 파쇄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고사목 100m 내외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방안 및 조치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사목을 발견한 주민은 군 환경산림과(041-670-2423)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염목을 무단 벌채하거나 이동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절대 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은 보통 매개충인 북방(솔)수염하늘소 등의 몸에 기생하다가, 매개충이 어린 나무 가지를 섭식하면서 생기는 상처를 통해 줄기로 침입,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연간 이동능력이 2~3㎞에 불과해 매개충 자체로 인한 감염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시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온양6동장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길병철)는 여름철 폭염에 특히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살피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온양6동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상담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부 확인을 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받은 대상자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상담을 받으러 가기 어려웠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길병철 동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각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복지사각지대 ZERO, 행복한 온양6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당진시장 하반기 읍면동 순방 마무리

시민 건의 사항 · 내년도 본예산 반영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6일 합덕읍을 끝으로 지난달 9일 송악읍부터 시작해 약 두 달간 진행한 하반기 읍면동 순방을 마무리했다.

당진시는 민선 6기까지 매년 초에 한 차례 순방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 순방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하반기 순방에서 시는 전반적인 시정 추진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김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순방 중 시민들이 건의했던 사항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관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새해 초 연두순방 만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상하반기 순방 외에도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는 8월 26일 배방읍 시설오이 재배 농업인을 4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기본교육을 가졌다.

아산시 GAP 인증농가는 1,669호로, 충남도 내에서 2번째로 GAP인증율이 높은 편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GAP인증 농가를 1,740호로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GAP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원 채희석 강사를 초빙해 GAP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 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 관리하는 방법과 농산물의 생산 출하정보 기록을 통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GAP영농일지 작성법 교육을 가졌다.

이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 1월부터 전 품목으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관리를 특히 강조했다.

박승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산시 농산물의 생산단계,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화성면, 학교앞 인도설치 '어린이 보호' 청양군 화성면(면장 강선규)이 주민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화강리 합천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강선규 화성면장은 "학교 앞 인도 설치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박정현 부여군수, 은산면 구기자 재배농가 민생방문

박정현 부여군수의 민생현장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은산면의 한 구기자 재배농가를 찾았다. 박 군수는 구기자 재배 농장주를 비롯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8개 부문 사업 제시

천안시, 2023년까지 5821억 투입해 건강 · 재난 · 농업 등의 세부사업 추진 계획

천안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재난 · 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대기질, 적응기반 등 8개 분야 20개 추진전략, 8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차 계획연도(2014~2018년)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차 계획연도(2019~2023년)의 부문별, 지역별 영향 예측 등 과학적인 취약성 분석으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해 최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과 연계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2차 계획은 '시민중심 기후변화 적응으로 더 큰 행복도시 천안 구축'을 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기후건강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물과 생명의 도시, 시민이 근심 없는 안전한 천안 건설을 목표로 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 부문은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 강화, 건강취약계층과 공공이용시설에 차열페인트(쿨루프) 활용,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등 9개 사업이 포함됐다.

재난 · 재해 부문은 초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시설 등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공동주택 계획 검토기준 수립 · 시행,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합동훈련 실시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신작물 개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전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 부문은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산림재해관리 무인(드론) 운영, 도시숲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물 관리 부문은 빗물 이용시설 설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성환천 수계 수질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생태계 부문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단속 및 보호활동 사업, 생활공간 생태면적율 증대,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대기질 부문과 적응기반 분야가 추가됐다. 대기질 분야는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11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적응기반 분야는 기후변화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등 5개 사업이 실행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2차 계획을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5821억 9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본영 시장은 "지역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배구대회 개회식

구본영 천안시장= 2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동남구청 신청사 인테리어 설계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고, 오후 1시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천안오픈 아시아 좌식배구대회 개회식에 참석.

중간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28일 오전 10시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 오후 2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성금 기탁식

박정현 부여군수= 28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어려운 이웃 성금 기탁식에 참석.

계룡세계군문화축제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병영체험

오는 9월 6일까지 26가족 모집… 병영체험으로 특별한 추억 선사

계룡시는 2019 계룡세계군문화축제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병영체험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을 모집한다.

1박 2일 병영체험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빠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매년 군문화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軍 통제구역에 있는 병영안보체험교육장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과 군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BB탄 사격체험, 위문편지쓰기, 외& · 세줄 타기, 야간순찰 등 병영체험과 함께 용도령 열차타고 계룡대 영내투어, 공연관람 및 이벤트 참여 등 다채로운 축제 참여 활동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이며, 신청은 축제 홈페이지(http://www.m-festival.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6팀으로 1팀당 6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1팀당 텐트 1동의 자리가 배정될 예정이다.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및 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042-840-2648)에 문의하면 된다.

축제 관계자는 "다양한 병영체험을 통해 아빠는 지난 군 생활을 추억하고 가족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병영체험과 더불어 다채로운 군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계룡세계軍문화축제는 '軍문화의 울림, 평화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를 중심으로 계룡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장 '후끈'

논산시, 다채로운 행사로 '열정 뿜뿜'

청소년들의 희망과 열정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특별함으로 채워지며,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24일 논산문화원에서 열린 청소년 문화유산사랑 발표대회에 모인 청소년들은 저마다 우리의 유산에 대한 애정을 담아 발표에 나섰으며, '논산의 서원 알리기'를 주제로 발표한 쌘뽈여중 3학년 박정은, 김민솔, 이서진 학생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진행된 '역사골든벨' 프로그램에서는 기민중학교 1학년 배대한 학생이 풍부한 역사지식을 뽐내며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골든벨을 울렸다.

26일부터 열린 '제5회 청소년연극제'에서는 쌘뽈여중 연극동아리가 첫 순서로 나서, 헬렌켈러가 장애의 벽을 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 설리번 선생님을 조명,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기적의 사람' 작품을 선보이며, 깊은 감동을 전달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쌘뽈여중, 강경중, 논산여중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무초, 논산여고, 연무고, 강경고, 논산고, 쌘뽈여고까지 총 9개교가 참여해 끼와 열정을 뽐내는 연극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30일에는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상식과 청소년문화학교 연기특강이 예정되어있다.

또, 29일에는 논산문화원 다목적홀과 전시실에서 초 · 중 · 고 10개교가 참여하는 청소년국악제와 초청공연이 마련되어있으며, 31일까지 '제34회 논산시 초 · 중 · 고 그림 · 글짓기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돼 흥겨운 공연은 물론 특별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청소년문화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청소년팀(041-746-5783) 또는 청소년문화센터(041-746-5926), 논산문화원(041-746-6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영농4-H연합회 선후배 간 소통문화 확산의 장 마련

서천군 ,지역사랑 봉사활동으로 소통, 나눔 실천

서천군 영농 4-H연합회(회장 홍석현)는 지난 27일 춘장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연합회 선 · 후배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서천군 4-H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천군 4-H 선 · 후배 간 소통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농기술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행사에 앞서 춘장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추진해 쾌적하고 청정한 서천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뜻깊은 활동을 펼쳤다.

홍석현 서천군 4-H연합회장은 "선배들의 영농 노하우를 전해 들으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니 피로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이번 화합 한마당을 통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얻어 서천군 영농기술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서천 농업 발전의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역으로 세대 간 소통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영농4-H연합회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회원 74명이 농업 · 환경 · 생명의 가치 창출과 농업 · 농촌 사회를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 자질 배양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부여군 82억 규모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선정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국비 5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2억 규모의 3개 신규사업이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은 예비단계인 현장포럼, 마을리더 교육,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필수사업을 이행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도 평가 및 중앙 평가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결과는 민 · 관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다.

2020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3개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으로 충화면, 장암면이 40억, ▲시군역량강화사업이 2억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해당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문화 · 복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심에서 먼 거리에 있는 면 소재지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문화 ·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촌공간의 효율적, 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동안 노력해 준 주민 및 추진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농촌지도자회(회장 이찬주), 생활개선회(회장 이미숙),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회장 권봉원) 등 3개 단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강원도 고령지 농업연구소 및 고랭지 쌈채류 포장 견학 ▲지역농업여건 및 조직력 강화 ▲관광자원화 발굴 위한 문화탐방 등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첫날 실시한 농업인학습단체(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前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인 김영환 회장의 쌈채류 재배단지 현장교육은 회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시간이었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인학습단체간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논산시가 벤치마킹하고 접목해야 할 좋은 기술을 연구하는 데 앞장서 농촌지역의 리더로서 논산의 농업발전에 힘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학교 주변 조리 · 판매업소 점검

서천군,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개학 맞이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한 주 앞두고 28일부터 학교 주변에 위치한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해 일제히 지도 ·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30일까지 사흘간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학교 매점, 문방구, 분식점, 편의점 등 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6명과 군 위생팀이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냉동 · 냉장 시설 온도 기준 준수 여부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서천'을 만들기 위해 우선 먹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 점검 이후로도 수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홍보 나서

계룡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의 대상을 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이동이 곤란하거나 정보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들은 등록 신청에 불편함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가 오는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등록서비스는 산림청 관계자가 신청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임업인들의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임업경영 관련 사항 및 문의사항을 안내한다.

등록서비스 신청방법은 관내 5인 이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마을), 단체, 산림조합 등이 중부지방산림청 경영체 등록 사무소(041-850-4055~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재배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임업인), 농업법인이다.

주요 임업별 기준면적은 수실류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 임업인들이 단 한명도 빠짐없이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맞춤 지원 및 소득창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전달, 마을방송, SNS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임업 유형별 · 사업별 분석으로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에 꼭 등록 할 것"을 당부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동 정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

김동일 보령시장 =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도서지역(외연도, 녹도, 호도,삽시도)민생현장 방문한다.

안전 · 환경 투자계획 발표회

맹정호 서산시장=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산4사 안전 · 환경 투자계획 발표회에 참석.

추석맞이 이웃사랑 기탁식

문정우 금산군수= 28일 오전 11시 상황실서 열리는 추석맞이 이웃사랑 기탁식에 참석.

추석맞이 머드화장품 특별 할인 판매

보령시, 오는 9월 17일까지… 품목별 최소 4%에서 최대 64%

보령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 대표 브랜드인 머드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22개 품목에 대해 최소 4%부터 최대 64%까지 할인 판매 한다고 밝혔다.

보령산 머드는 미네랄성분이 풍부하고 게르마늄, 벤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돼 피부 수축과 피부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또 이스라엘 사해 머드와 견줄만한 피부미용과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하다.

이에 따라 시는 1995년 머드를 활용해 머드화장품으로 제작 · 판매하여 20여 년 넘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올해는 바다가 주는 생명력과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을 가미하기 위해 기존과 비교해 머드함량을 대폭 증가한 '오션테라피'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특별 판매기간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리뉴얼 이전 제품인 여성 스킨과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여성기초 2종 및 5종 세트로 최소 57프로에서 최대 64% 할인한다.

또한 신제품 할인으로는 검정콩과 흑미 추출물을 가미한 탈모샴푸를 비롯해 바디클렌저(1만5000원→1만4000원)는 각 7%, 미백과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난 남성올인원은 11%(3만5000원→3만1000원)를 할인하고 비누와 탈모샴푸로 구성된 기본세트와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로 구성된 헤어앤바디세트 등도 각 5% 할인된다.

구입은 보령머드박물관과 보령시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입하면 택배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구입 문의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932-2239)으로 하면 된다.

보령=김정미 기자

민선7기 공약 실천 높이기 보령시 매니페스토 교육 실시

보령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약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방안 향상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빙해 착한 성장사회와 가치행정,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성공적 공약실천을 위한 전략, 정책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 실천을 위해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핵심과제와 재원 조달, 공약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소명과 철학"이라며, "철학과 시대소명에 따른 선택과 집중은 결국 도전과 열정, 영혼이 깃든 책임 공약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말 기준 보령시의 민선7기 공약 이행달성률은 44.9%로 전체 65건 중 15건을 완료하고, 5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3건은 임기 내에 완료하고 12건은 임기 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료 공약으로 ▲보령항 개항지정에 따른 정부기관 유치로 군산세관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개청 ▲여객선 추가 운항으로 발생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초 · 중 · 고교생 학습교구재 지원 ▲전 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등이다.

보령 =김정미 기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공주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 기자

금산군, 다자녀 부모 출산 축하 선물꾸러미 전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 공감형 출산정책 만든다"

금산군은 2019년 넷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부모를 초대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꾸러미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한 5가구의 부모님이 참석하였으며,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고충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아의 경우 500만원, 둘째아 7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하며, 1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넷째아 이상)씩 연차별로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문정우 군수는 "요즘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금산, 출산 친화적인 금산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 공감형 출산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제427주기 이치대첩기념제 성료

이치대첩 임진왜란 첫 승전지 조명

금산군과 이치대첩추진위원회 · 금산문화원은 지난 26일 제427주기 이치대첩기념제를 개최했다.

기념제는 충장사에서 1부 행사로 헌화 및 분향 행사를 진행하고, 진산愛행복누리센터로 이동, 2부 행사로 이치대첩지 경과 보고 및 승전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치렀던 이치대첩 전장인 이치대첩지를 보존하기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의 기념제가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중 조선의 관군이 내륙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이다.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호남지역의 곡창지대를 수호하고 나아가 청주성 전투, 진주대첩, 행주대첩 등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

이치대첩지는 1984년 '권율장군이치대첩비' 문화재자료 제 25호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이치대첩지' 충청남도 기념물 제 154호로 지정됐다. 금산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은 각종 세미나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산=주연기기자

서산시 추석명절 대비 도로환경 정비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9월 추석명절을 대비해 도로환경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도로정비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되며, 관내 시의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정비계획에 따라 관내 15개 읍면동과 협조로 노견(길어깨) 및 포트홀 정비, 비포장도로 골재포설, 제초작업, 노면정리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시설물 및 교통표지판 점검 등을 실시해 도로안전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개통된 동서간선도로로 귀성객이 분산되어 시내 교통적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주요 간선도로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도로정비 인력이 투입될 계획이다.

고명호 도로과장은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향길을 위해 추석맞이 일제 도로정비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연중 수시안전점검 등 환경정비를 통해 일상에서도 시민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서산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가을 개학을 맞이해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떡볶이 등을 조리 · 판매하는 분식점, 학교매점, 슈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11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 부정 · 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개선조치하고, 중요한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 5일 석림초등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실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부정불량식품 식별방법 및 카페인 바로 알기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금산군 '우수상' 선정

금산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조사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주민참여도 등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사업 및 보건과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금산건강누리관' 운영, 인재육성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 등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산=김정환기자

'민사소송'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공주시, 민사소송으로 선순위 확보 후 공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라는 새로운 전문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5년 이상 된 부동산에 압류권자인 공주시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한 부동산의 보전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또는 취소 소송을 거쳐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공매징수하는기법이다.

시는 올해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89건 1억 9백만원에 대한 소송 후 징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약 1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0건, 8억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손우혁이 윤복인에 전해준 '문서'의 정체?!

마주 앉은 수진과 애리. 둘은 은석과 제니의 결혼에 관한 얘기 도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달려드는데… 한편, 만수는 경인과 제니를 각각 만나 서류봉투를 건넨다. 서류 봉투를 확인한 경인과 제니는 얼굴이 굳어지고 마는데…

▲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원은 경애를 찾아가 분노하고, 금희는 상원을 걱정한다. 금주는 석호를 만나러 갔다가 소라와 마주친다.

한편 경애는 여름이가 상원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가는데…

▲ 신입사관 구해령 (MBC 오후 9시00분)

[익숙해지십시오. 이런 거] 해령(신세경)의 적극적 애정표현이 싫지 않은 이림(차은우)! 모화를 집으로 초대하는 해령! 한편, 예문관 한림 서권(지건우)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압록강을 건너 들어온 서양오랑캐 소식으로 도성은 난리가 난다. 급기야 그 오랑캐(?)가 이림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케이블 명화

▲ 고지전 (OCN 오전 10시30분)

1951년,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모든 전선은 '고지전'으로 돌입한다!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교착전이 한창인 동부전선 최전방 애록고지에서 전사한 중대장의 시신에서 아군의 총알이 발견된다.

상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적과의 내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하고 방첩대 중위 '강은표'(신하균)에게 동부전선으로 가 조사하라는 임무를 내린다. 애록고지로 향한 은표는 그 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김수혁'(고수)을 만나게 된다. 유약한 학생이었던 '수혁'은 2년 사이에 이등병에서 중위로 특진해 악어중대의 실질적 리더가 되어 있고, 그가 함께 하는 악어중대는 명성과 달리 춥다고 북한 군복을 덧입는 모습을 보이고 갓 스무살이 된 어린 청년이 대위로 부대를 이끄는 등 뭔가 미심쩍다. 살아 돌아온 친구, 의심스러운 악어중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은표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격전지 애록고지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 쿵푸허슬 (채널CGV 오후 6시20분)

<소림축구> 드림팀이 쿵푸로 돌아왔다! 축구는 가라! 쿵푸가 왔다!

법보다 도끼(?)가 앞서던 1940년대 중국 상하이. 난세를 틈타 어둠의 세력을 평정한 도끼파의 잔인함에 신음하고 있던 바로 그때, 너무 가난해서 뺏길 것도 없는 하층민만이 평화롭게 모여사는 돼지촌에 불의만 보면 잠수타는 소심한 건달 싱(주성치)이 흘러든다.

돼지촌을 폼나게 접수해서 도끼파 보스의 눈에 띄고 싶었던 싱의 협박은 도끼파와 돼지촌 주민 간의 전면대결로 이어지고, 놀랍게도 강호를 떠나 돼지촌에 숨어있던 강호의 고수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예상치 못한 쿵푸 고수들의 등장으로 위기에 몰린 도끼파는 떠돌이 형제킬러 심금을 울리는 가락을 고용하는 한편 싱을 이용, 자신의 적수를 찾지못해 살짝 돌아버린 전설 속의 쿵푸달인 야수를 빼돌려 돼지촌을 접수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도끼단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최고의 고수는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음이 밝혀지는데.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3:20 버닝
6:10 특별수사: 사형수의편지
8:30 몬스터콜
10:30 고지전
13:00 WATCHER(왓쳐)
16:00 설록3
19:40 설록3
21:40 미스터기간제

◈ 채널 CGV
6:30 어느날
8:50 WATCHER(왓쳐)
11:50 람보3
13:50 순정(2015)
16:10 웜바디스
18:20 쿵푸허슬
20:20 7번째이들
22:30 스파이게임

◈ Mnet
7:50 MPD's MV코멘터리
8:20 M morning
9:00 고등래퍼 2
10:30 썸바디
12:1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베스트 퍼포먼스
13:50 MPD Music Talk(SNS/메신저)
14:5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16:20 Daily Music Talk(SMS)
17:20 썸바디
19:00 인싸채널 체리블렛
20:0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21:30 M COUNT DOWN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엠스플레이리스트
12:00 2018 NFL 플레이오프 진출팀 하이라이트
12:30 컴투스 프로야구 포인트 B 하인드
14: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메달모음
16:0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 SBS 스포츠
9:08 18-19 쇼트트랙 월드컵3차 하이라이트
11:07 18-19 V리그여자부
13:09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6:07 18-19 V리그남자부
18:06 18-19 V리그최고의 세트
18:50 18-19 V리그여자부
21:05 18-19 V리그여자부

◈ 온스타일
9:25 겟잇뷰티 2018
10:35 겟잇뷰티셀프 2018
10:50 밥블레스유
12:35 밥블레스유
13:3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4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6:55 겟잇뷰티 2018
18:10 겟잇뷰티셀프 2018
18:2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21:10 원나잇 푸드트립:언리미티드
23:15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0:15 YTN 24
21:00 뉴스만만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려라 성공취업
21:00 장외주식 4989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3:15 <인생은 야생이다> 와일드 페루
15:15 <인생은 야생이다> 익스트림 애니멀 베이비 - 3부
16:10 이주의 법칙
16:39 TV 동물농장
19:01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1 <BEST PICK>이어 밀라언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음악 · 애니

◈ MBC 뮤직
8:20 음악앨범
9:20 2018 MBC 가요대제전
13:30 비디오 스타
15:05 MBC MUSIC HIT SONGS
15:50 쇼! 음악중심
17:03 주간 아이돌 스페셜
18:00 Show Champion
19:30 주간 아이돌 스페셜

◈ 애니맥스
6:00 고스트 닌자고
7:00 파파독
8:00 파워캐치 윈다 part 2
9:00 꼬마버스 타요3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퍼피구조대
12:00 애슬론 또봇3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자두야 시즌2
15:00 터닝메카드W 시즌2
16:00 헬로카봇5
17: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 JEI 재능방송
7:00 다이노코어 2
8:00 파워캐치 윈다 part 2
9:00 터닝메카드W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또봇 10기-정의의 또봇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새서미 스트리트-엘모 더 뮤지컬
13:00 소피루비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 영웅전사
16:00 놓지마정신줄
17:00 헬로카봇 5
18:00 파워레인저다이노포스 브레이브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 11:50 UHD 한식의 마음 12:00 KBS 뉴스 12 1: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의별 중계 1:50 다큐세상 2:4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2:50 전국 노래 자랑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40 다큐멘터리 3일 8:30 여름아 부탁해 9:00 KBS 뉴스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0 오늘밤 김제동 11:30 UHD 숨터 11: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저스티스 1: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 유치원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반지의 비밀일기 2 5:30 강력추천 배틀트립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7:50 태양의 계절 8:30 글로벌 24 8:55 살림하는 남자들 10:00 저스티스 11:10 썸바이벌 1+1	6:00 MBC 뉴스투데이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신입사관 구해령 12:00 12 MBC뉴스 12:20 신입사관 구해령 1: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2 1:55 2시 뉴스외전 3:20 에어로버 3:50 빠샤메카드 4:30 모두 다 쿵따리 5:00 5 MBC 뉴스 5:25 최종우돌 만국 유람기 6:25 생방송 오늘 저녁 7:30 MBC 뉴스데스크 8:55 신입사관 구해령 10:05 실화탐사대 11:00 라디오스타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20 모닝와이드 8:40 수상한 장모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방학특집 안녕자두야 언더 더씨 12:00 SBS 12뉴스 12:50 TV동물농장 2:00 뉴스브리핑 4:00 SBS 스페셜 5:00 SBS 오뉴스 6:00 백종원의 골목식당 7:00 생방송투데이 8:00 SBS8뉴스 8:55 영재 발굴단 10:00 닥터탐정 11:10 백종원의 골목식당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0 최지영 시인 내안애그대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뉴스 8:00 뉴스와이드 8: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9:00 CMB 스포츠 2019 KBO 리그 한화이글스 vs 키움히어로즈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30 메디컬 인 2:00 충남도 행복톡 3:00 CMB뉴스 3:50 충청남도영상소식 4:00 염홍철의사람과 세상 5:00 회첩기행 6:00 뉴스와이드 6:20 CMB 스포츠 2019 KBO 리그 한화이글스 vs 키움히어로즈 10:00 행복비나리 11:00 뉴스와이드	6:10 세계의 눈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시계마을 티키톡! 8:45 방귀대장 뿡뿡이 9:00 출동! 슈퍼윙스 9:40 라이브토크쇼-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잭과 팡 14:30 미 앤 마이 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30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한글이 야호2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18:05 쓰담쓰담 동물원프렌쥬 18:20 톡! 톡! 보니 하니 2 18:25 야옹멍멍 귀여워 18:40 톡! 톡! 보니 하니 3 18:45 역사가 술술 18:55 톡! 톡! 보니 하니 4 19:00 레전드히어로-삼국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 직업

공주시청 김현종, 2019 유스세계양궁선수권대회 3관왕

개인전 · 남자단체전 · 혼성전 금메달… 한국 종합 1위

공주시(시장 김정섭) 양궁팀 소속인 국가대표 상비군 김현종 선수가 2019 유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한국시간)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 리커브 남자 주니어부에서 터키의 신궁 메테 가조즈를 세트승점 7대 1로 가볍게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간 김현종 선수는 미국의 강호 잭 윌리엄스를 6대 4로 물리치고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단체전에서는 이진용(조선대1), 김필중(한국체대1)과 팀을 이뤄 숙적 일본을 5대 3으로, 장민희(인천대2)와 팀을 이룬 혼성전에서는 프랑스팀을 6대 2로 이기고 남자부문에 걸린 금메달 3개 모두를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리커브 남자 주니어부(21세 이하), 카뎃부(17세 이하), 각 남녀 및 혼성부문으로 나누어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기량을 겨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 상비군과 중학교 우수자원이 출전한 가운데, 김현종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금메달 7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1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편, 공주시청 소속인 김현종 선수는 박경모 감독의 지도아래 성장을 거듭하면서 올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으며, 이번 대회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두는 등 대한민국 양궁을 이끌어갈 재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경모 공주시청 감독은 "김현종 선수는 어린나이에도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기관리에도 철저한 선수로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밭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 운영

한밭도서관이 내달 3일부터 대전지역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부모교육은 9월 3일부터 24일까지 한밭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4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영유아 부모(아기 동반 가능)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교육은 북스타트 코리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그림책 함께 읽기' 등을 주제로 류영선, 김지연, 오혜자 등 북스타트 전문 강사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스타트 부모교육은 무료로 운영되며,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이밖에 하반기 북스타트 프로그램도 10월중 진행 예정"이라며 "영유아 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아산여성새일센터, 기업경리 실무사무원 양성과정 개강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기업경리 실무사무원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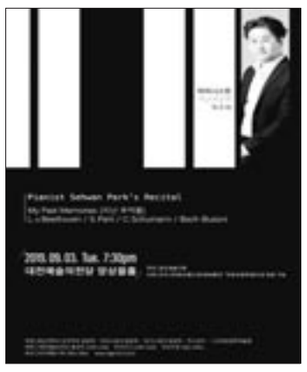
교육은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개월간 월~금, 총 160시간을 진행한다.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검증받은 총 20명의 수강생은 엑셀, 전산회계에 관한 전문직업교육과 취업대비교육, 직무소양교육을 함께 병행할 예정으로 교육 수료 후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로 양성된다.

김병운 센터장은 "본 과정을 디딤돌로 삼아 전원 수료해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여성새일센터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70-5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박세환 피아노 독주회 개최



피아니스트 박세환 독주회가 내달 3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박세환은 내면의 예술적 독백을 표현할 때, 닮고자 하는 인물의 내면을 연구한다. 피아니스트에게 베토벤 소나타는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베토벤 소나타에 녹아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에너지, 자신에 대한 도전을 음악으로 승화한 그 열정을 닮고자 한다. 베토벤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인데, 피아노 소나타 32곡에 베토벤의 음악적 성향이 잘 녹아있다. 초기 소나타는 하이든, 모차르트의 작곡기법인 전형적인 고전형식을 따르지만, 중기, 후기의 피아노 소나타는 베토벤 음악이 독특성이 표현된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제5회 칠갑산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공 개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제5회 칠갑산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청양군민체육관에서 24일과 25일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300개 팀 2300여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는 남자복식 31개 부문, 여자복식 22개 부문, 혼합복식 31개 부문 등 총 84개 부문 경기로 진행됐다.

대회 유치 및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양군배드민턴협회 엄양호, 김병욱 이사가 청양군수 공로패를 받았으며, 최다 참가상 시상에서는 112팀을 출전시킨 '배친소' 그룹이 1위, '꼬꼬모꼬'(91팀) 그룹이 2위, '70and67양'(69팀) 그룹이 3위에 올랐다.

청양=정상범기자

MSL 명성레포츠
최재종
FAX : 042)472-3685 H·P : 011-408-6060 Website : www.mslsports.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운영회, 보령시에 추석 쌀 전달 보령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기성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보령시운영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한남대-고려대-홍익대 업무협약 체결 한남대 과학벨트창업성장지원사업단(단장 신윤식)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창업지원센터(센터장 지상철), 홍익대 세종캠퍼스 창업성장지원사업단(단장 한정희)과 과학벨트 기능지구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대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 헬스케어 융합산업 확산 위한 MOU 체결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단장 안택원 교수)이 27일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지리산 청강원 세미나실에서 (사)한국항노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주시 옥룡동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벤치마킹 공주시 옥룡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 한돈 4000kg 예산군에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지부장 김계현)는 27일 관내 384개 경로당과 사회복지설 등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한돈 4000kg을 예산군에 기탁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 산업안전협회 대전본부등과 MOU 체결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박원범)는 27일 오전 지부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응구), TBN한국교통방송 대전본부(본부장 설용숙)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서대학교 학군단, 2019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결과

ROTC 후보생 충청권 최다 합격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 학군단이 2019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결과 전국에서 정원대비 자유경쟁 최다 인원을 합격시켜, 충청권에서 최다 ROTC 후보생을 선발했다.

이 같은 쾌거는 군사학과가 설치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육군장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변화, 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식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이 경쟁력과 합격률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했다.

호서대는 2019년 ROTC 후보생으로 2학년 50명, 1학년 18명이 최종 선발되어 전국 110개 학군단 중 정원대비 제일 많은 학생이 합격했고, 2학년 후보생은 50명(남 40명, 여 10명)으로 충청권 최고를 달성했다.

2학년 여자 후보생 10명 중 가장 많은 법경찰행정학부의 신승현 학생은 "ROTC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으나 '할 수 있다! 하면된다!'는 신념과 교수님과 동료들의 격려가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육군 여군장교의 길을 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군단장 박진호 대령(육사46기)은 "유관순 애국열사의 얼이 깃든 천안·아산의 호서대학교 학생답게 국가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군(軍)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군장교와 학군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많은 인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유능함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은 학군단에 입단하여 ROTC 후보생으로서 2년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해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호서대학교 학군단은 2017년과 2018년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주관한 종합평가와 교육훈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학군단 표창, 2018년 학군사관 선발에서 전국 110개 학군단 중 2개교만 선정하는 '2018년 인력획득 우수학군단'으로 표창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 지구, 친선골프대회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지구(총재 김진규) 제32회 총재배 친선골프대회가 골프분과위원회(위원장 정구민L) 주관으로 지난 8월 26일 12시에 백제C.C에서 총 69팀의 라이온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라이온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골프대회는 역대최다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기결과 대전태광클럽이 단체상 우승을 차지하였다. 김정환기자

충남 학교 운영위원 연합회장에 최태석 당진 지역협의회장 선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지난 26일 충청남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 학교 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태석 당진시 지역협의회장(51)을 2019년 충남 학교 운영위원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2019년도 임원은 수석부회장 박병일(서천), 부회장 최병웅(논산계룡)·부회장 하건수(홍성)·급식 부회장 유미(아산) 3명의 지역협의회장이며, 감사는 성승환(금산), 고문으로 여덕현(청양), 사무총장 이수진(부여) 지역협의회장이 선임됐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화력본부,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 기대

'빛 드림(Dream) 봉사리더단' 창단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윤옥)는 27일 전력문화홍보관에서 당진화력본부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나갈 '빛 드림(Dream) 봉사리더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빛 드림(Dream) 봉사리더단'은 진정성 있는 봉사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창단되었으며, 기존 800여명의 당진화력 봉사단을 대표하는 동시에, 신규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봉사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발대식에는 박윤옥 당진화력본부장이 참여하여 축사와 함께 봉사리더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이후 봉사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회공헌의 이해 및 봉사 트렌드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박윤옥 본부장은 "이제 빛 드림 봉사리더단이 당진화력본부의 얼굴이다."며 "앞으로 가치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봉사리더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행 예정인 '한가위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당진=최근수기자

제1기 공주박물관대학 5차 강좌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진우)과 (사)국립공주박물관회(이사장 최석원)는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기 공주박물관대학 '건축을 보다'를 개설했다.

"조선시대 궁궐의 경영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5차 강좌를 8월 28일에 공주 고마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한다.

제1기 공주박물관대학은 국립공주박물관과 (사)국립공주박물관회가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8월에 진행하는 5차 강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건축인 조선시대의 궁궐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강근 교수와 함께 조선시대의 궁궐경영에 대해서 창덕궁 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제1기 공주박물관대학은 회원제로 운영하지만 당일 현장접수로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설명회'

무협, 전략물자관리원·KOTRA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27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공동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2차 수출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역 무역업계에 설명하고 애로를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외에도 최근 통상현안과 업종별 대응전략을 담은 '통상전략 2020'도 함께 발표됐다. '통상전략 2020'은 현재 무역업계가 직면한 통상 환경을 점검하고 지역별·산업별 통상전략과 기업의 통상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서 작성한 전략 로드맵이다. 이어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규제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대응 절차를 안내했고, KOTRA는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기업제도 활용방안 및 수입대체선 발굴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애로상담 코너도 마련됐다. 특히 상담회에는 KAIST 소재 부품장비 기술자문지원단이 참가해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도 제공했다. 무협은 이번 대전 설명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충남 지역에서는 오는 30일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지역별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애로·건의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협 김용태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계룡산국립공원, 특산물 도시락 서비스 주문 가능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오는 9월 1일부터 탐방객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일회용품 줄이기,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락 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도시락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시락 주문은 카카오톡에서 '계룡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뒤 친구를 맺어 채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팔봉면 이장단협의회 등 16개 사회단체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분위기 확산

서산시. 팔봉면(면장 유목근) 이장단협의회 등 16개 사회단체와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합동으로 "추석명절 서산사랑상품권(사진)으로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사용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서산사랑상품권의 출시기념 및 추석명절 특별할인 이벤트에 발맞춰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장 및 팔봉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당 5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에도 유목근면장은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또한 적극 추진하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알 림

▲ 2019 추석맞이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 대전교도소 앞 기자회견 =28일(수) 오전10시30분 대전교도소 정문 앞

건강 칼럼

소아사시, 치료 늦어지면 약시 유발

조원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시클리닉 교수

사시는 양쪽 눈의 정렬상태가 똑바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아이들의 경우 밝은 햇빛에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자주 눈을 비비거나 깜박거릴 때, 고개를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려서 볼 때,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피곤할 때 한 눈의 초점이 안 맞거나, TV를 앞에 다가가 보려하고 잦은 두통의 호소 또는 복시가 있으면 사시를 의심할 수 있다. 사시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약시 치료 8세 이전에 치료 받아야 효과 커

사시의 원인은 원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외상, 뇌질환, 한쪽 눈의 시력장애 등 다양하며, 정밀한 검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람의 눈은 태어나서 2~3개월이 지나면 물체를 주시하며, 자라면서 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시력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5~6세 정도 되면 글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독시력이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소아사시 환자의 경우 정면을 주시하는 눈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만 돌아간 눈은 사용하지 않게 돼 시력이 발달되지 않고 약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약시는 안과 정밀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시력표 검사를 하면 양쪽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약시의 치료는 시기가 어릴수록 치료의 성공률이 높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내사시 생후 6개월에서 흔히 발생

사시의 종류는 가성사시, 내사시, 외사시, 수직사시 등 형태에 따라 나누거나 마비사시나 이차사시 등 원인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눈의 안쪽 눈구석에 위 눈꺼풀에서 아래 눈꺼풀로 이어지는 피부가 도드라지거나 안구사이의 간격이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두 눈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는 정상 위치에 있지만 겉모습은 눈 안쪽의 넓은 눈구석 피부가 눈의 안쪽 흰자위를 가리기 때문에 눈의 까만 동자가 눈의 안쪽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것을 가성사시라고 하며, 가성사시는 실제로 눈이 몰린 것이 아닌 정상 상태이므로 치료는 필요 없고 아이가 자라면서 콧등이 높아지고 눈 안쪽 구석의 피부가 콧등 쪽으로 당겨지면서 눈은 정상모습으로 된다.

내사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해 매우 심하게 눈이 안쪽으로 몰려있는 영아내사시와 심한 원시가 있는 아이들에서 주로 생긴다. 안경교정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조절내사시, 그리고 기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조절 내사시 등이 흔히 볼 수 있다.

외사시 중 간헐성 외사시는 피곤하거나 TV를 장시간 시청한 후 또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와 같이 가끔씩 한쪽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사시로 햇빛에 나가면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는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더욱 진행되면 눈이 항상 나가있는 외사시로 바뀔 수도 있다.

▲사시 치료, 시력회복이 중요

치료는 사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안경착용, 약시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안경 착용은 원시이며 내사시인 경우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망막에 초점이 정확히 맺지 않아 발생하는 원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눈이 과도한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조절로 두 눈의 초점이 한 점으로 몰리는 폭주현상으로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나타나게 된다. 안경 착용은 이러한 과도한 조절을 막아줌으로써 눈이 안으로 몰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약시 치료는 건강한 눈을 안대로 가리거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아트로핀 점안액을 정상적인 눈에 넣어 약시가 있는 눈으로만 물체를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안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린이의 경우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몰래 안대를 떼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시 치료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 불가능하다.

수술적 치료는 안경 착용 및 약시 치료의 경과나 사시의 종류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실시하는데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에 조그만 절개를 가한 후 한 눈 또는 양 눈의 외안근을 수술하게 된다. 마취는 대개 전신마취를 하지만 어른의 경우 국소마취도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이미 시력 발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시 수술은 시력 회복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수술에 해당한다.

사 설

경제성장률 둔화, 지금대비 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까지 낮아 질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장 회의에서 민간참석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렸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의 이번 성장률 조정은 지난 3월 2.3%에서 2.1%로 내린데 이은 두 번째 조정안이다.

하지만 홍남기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이은 미중간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경직성 확대 등이 경제성장 발목을 잡고 있지만 현재 기조를 이어 갈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일무역 갈등이 막다른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도 또 다른 복병이다.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주식지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호언하는 정부를 믿고 싶지만 커지는 위기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낙관이 자칫 위기대응 시점의 실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생산된 재화의 총량이 줄었다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경제신호를 주게 된다. 부의 크기가 낮아지고 국력이 상실됨은 물론이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위축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조치를 비롯해 세제지원, 수출다변화를 정부의 지원조치 강화 등은 시기가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탄력을 주고 영세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사라져야 할 정부의 3대 新적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3가지의 부정성(否定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 비합리주의가 그것이다. 반시장주의는 시장 원리와 경제적 자유를 훼손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가 막힌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 피해를 지원한다며 등장한 카드수수료 인하, 관제 신용카드 도입 같은 제2, 제3의 반시장주의 대책까지 쏟아지며 민간시장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도 비슷한 사례가 될 듯하다. 물론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와 실수요자 간 괴리가 커질 것이고, 점차 공급 물량도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끝난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탕 삼탕되는 건 '포퓰리즘'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함인데, 그 폐해가 실로 크다. 선심성 · 감성적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편을 가르고, 가격통제, 최저임금, 국유화를 통해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며 나라를 붕괴시킨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대통령이 그랬다.

청와대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신고리 5 · 6호기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지금껏 폐쇄된 밀실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원전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요, 한전의 누적적자 급증과 산림 훼손, 원전인력 유출 등 그 부작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껄끄러우면 정보의 질과 속도를 낮추면 될 일이지, 직접 판까지 깰 필요가 없었다. 한 · 미 · 일 안보 공조체제 균열 및 붕괴를 염원하는 북 · 중 · 러를 이롭게 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해롭게 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결정판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 비합리주의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있다. 밖으로는 외교관계를 고립시키고, 국가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루속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정농단보다 더 참혹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

기 고

배려를 통한 선진집회문화 정착

김병일
공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 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불법'폭력 시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인식 개선과 준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해 감에 따라 불법 폭력 집회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회로 인한 소음문제는 크게 진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집회 현장에는 확성기, 방송차량의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집회현장 주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소음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집회 소음 규정은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규정하여 수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집회 시위를 행하는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를 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동법 제24조 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집회 ·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해야 하며, 집회참가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만을 앞세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일반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성숙한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충남도, 정부 추경 · 日 수출 규제 대응 1811억 원 편성

제2회 추경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 올해 총 재정 규모 8조 육박

충남도는 181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일 통과한 정부 추경 사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재정 규모는 당초 7조 7517억 원에서 7조 9328억 원으로 2.34% 늘게 된다.

회계별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1575억 원(2.55% 증가), 특별회계 94억 원(1.67% 〃), 기금 142억 원(1.4% 〃)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38억 원, 특별교부세 55억 원, 국고보조금 1376억 원, 국고반환금 6억 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722억 원, 의무적 경비 29억 원, 특별 · 소방안전교부세 55억 원, 자체사업 260억 원 등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6개 사업에 11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자동차 소재 · 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6억 3000만 원,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2억 원,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과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에는 각각 1억 원을 반영했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과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은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늘렸다.

정부 추경 반영 사업 중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88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5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8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8억 원 등을 증액했다.

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1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11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6억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6억 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1억 원 등도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으로 계상했다.

2회 추경에는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7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43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10억 원 ▲긴급복지 지원 21억 원 ▲공공 산림 가꾸기 16억 원 ▲퇴비유통센터 15억 원 등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추경에 발맞추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사업을 반영했으며,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는 등 추경 편성 기본 원칙에도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6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종촌동주민자치위원회 추석맞이 환경정비 실시

버스정류장 의자 보수 · 페인트 재도색 등 환경정비 활동

세종시 종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두표)가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류장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종촌동주민자치위원회 동내 20곳에 이르는 버스정류장의 낡고 부서진 의자를 보수하고 페인트 도색을 이미 완료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켈리그라피 강좌 수강생들이 정성들여 만든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문구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는 등 환경정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추석 연휴 전까지 버스정류장 내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바닥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홍두표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환경정비에 열심히 동참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고향을 찾은 주민들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닥터케어 GOLD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미투 me too 술에 너 이상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